

행사결과 보고서

① 행사명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			
② 일시 / 장소	일시	2014년 3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 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서울광장
③ 행사기관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후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④ 참여인원	○ 조경 관련단체 회원 및 서울시민 등 300 여명			
⑤ 행사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노근 국회의원,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김정희 녹색도시과장을 비롯하여,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이하 서울시 조경관련부서 공무원, 김한배 한국조경학회장을 비롯한 조경관련 단체장 및 회원 조경인,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조경학과 재학생 및 교수, 서울시민 등 300 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기념식을 개최함.○ 조경계 원로고문인 양병이 서울그린트러스트/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의 “조경 - 위기인가? 기회인가?”란 특별강연으로 기념식을 시작함.○ 기념식은 한국조경현장 낭독, 조경의 날 경과보고, 김한배 학회장의 환영사, 이노근 국회의원의 축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수여 및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의 치사 대독,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및 공로상 시상을 함.○ 실내 기념식 행사장 입구에는 ‘조경의 날 제정 배경 및 경과’, ‘공원법 제정 이후 조경학 탄생까지의 조경계 뉴스’를 다룬 전시 패널을 전시함.○ 3부 야외행사로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참여정원’으로 “조경의 날”과 “3.3”의 글자를 새긴 정원공간을 꾸며, 테이프 커팅, 레드카펫 걸기, 시민과 함께 못 박기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함.			
⑥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조경인만 참가하는 행사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앞으로는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시상내역: 국토교통부 장관표창(8), 자랑스러운 조경인상(10), 공로상(1)

구 분	이 름	소 속 및 직 위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45호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46호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47호	장대수	(주)청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48호	정복현	삼흥엘앤씨(주)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49호	김정식	(주)온유조경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50호	정길균	(주)케이엘에스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51호	류기혁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방녹지주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4452호	한국수자원공사	시상자: 류지훈 처장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1호	진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2호	김인수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소장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3호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4호	신현돈	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5호	양기방	한국건설신문 편집국장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6호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7호	허남태	(주)신정조경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8호	조성학	예진조경건설(주)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09호	김득일	명산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제2014-010호	조영철	GS건설(주) 부장
공로상 제2014-001호	노영일	(주)예건 대표이사

○ 관련자료: 사진 및 기사 스크랩, 방명록, 유인물 등

제11회 조경의날 기념식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초청의 말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14년 3월 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1회 조경의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년 행사부터는 조경인 모두의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조경관련 6개단체 공동 주관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공원법 제정일이자 경주 안압지 축조일인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재확정하여 올해 첫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경인과 조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한배, 이용훈

안내사항

통역

- 통역비: 없음
- 시 간: 2014년 3월 3일(월) 13:30~17:00
- 장 소: 실내행사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야외행사 - 서울광장

교통 및 주차

-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차비: 30분에 기본 3,000원 10분당 1,200원

행사일정

시간	내용
12:00~13:30(90')	조경계 단체장과 고문논과의 간담회
1부, 등록 및 특별 강연	
13:30~14:00(30')	등록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4:00~15:00(60')	특별강연 양병이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2부, 조경의날 기념식	
15:00~15:05(05')	개회(사회)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
15:05~15:10(05')	조경한길 남독 장병관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15:10~15:15(05')	조경의날 경과보고 서주환 조경의날행사 조직위원장
15:15~15:20(05')	환영사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15:20~15:25(05')	축사 박기춘 국회의원(민주당)
15:25~15:30(05')	축사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15:30~15:50(20')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수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5:50~15:55(05')	치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5:55~16:30(35')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수여 김한배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16:30	폐회(사회)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
3부, 시민참여 정원만들기행사 관람	
16:30~17:00	서울광장으로 이동 및 관람 (13:00~17:00까지 행사 진행)

• 주 회 : (사)한국조경학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주 관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환경조경지재산업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제11회 조경의날 기념식

2014.3.3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초청의 말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14년 3월 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1회 조경의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년에 공원법 제정일이자 경주 안압지 축조일인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재확정하여 올해 첫 행사를 조경인 모두의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조경관련 6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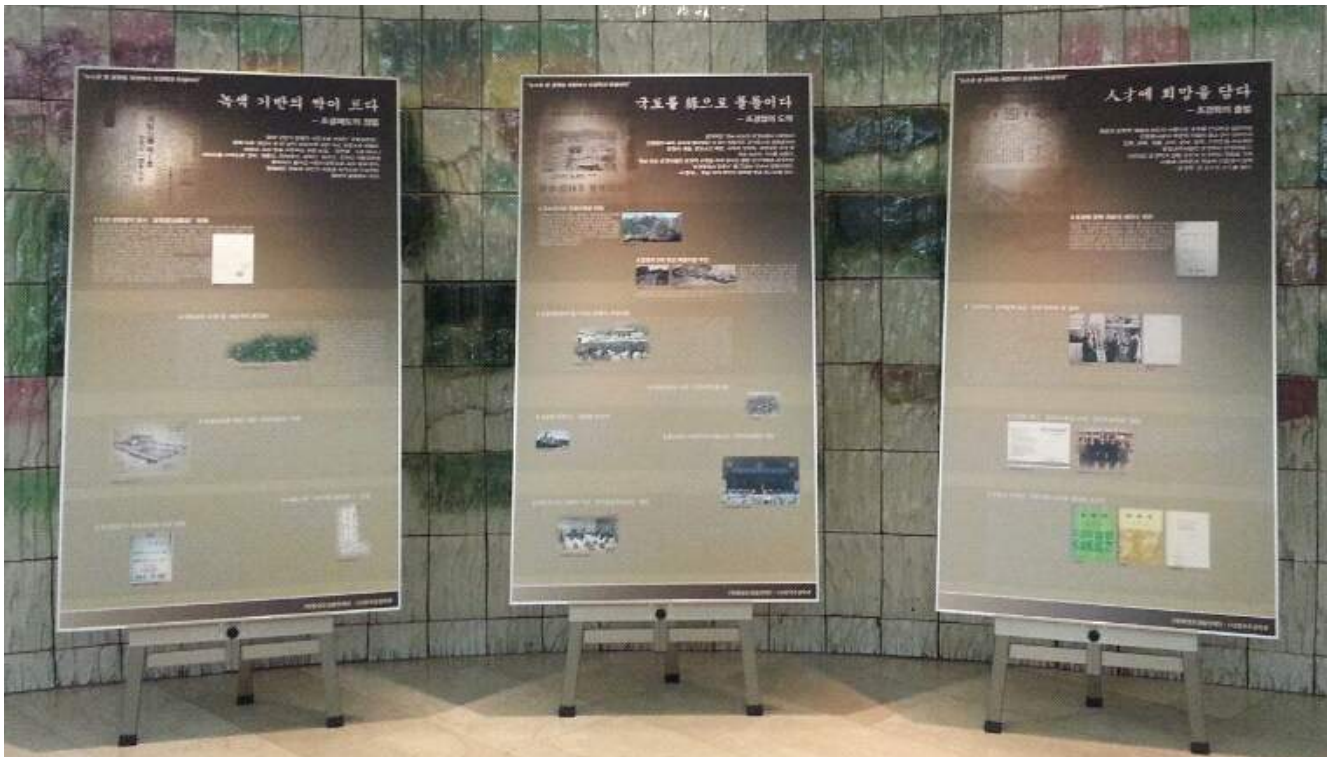
이에 기념식 전에 조경관련 단체장과 고문논과의 간담회를 준비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셔서 조경인의 축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한배, 이용훈

- ◆ 일시: 2014년 3월 3일(월) 12시(정오)
-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지하1층 '더 테이블' 한정식



- 주 회 : (사)한국조경학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주 관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환경조경지재산업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3부. 시민참여 정원만들기 - 서울광장



[사진 출처: 서울시 나영완, 한국조경신문, 라펜트, 아이엑스코 등]

“새로운 조경계 통합 잔치가 가장 큰 의의”

3월 3일, '제 11회 조경의 날 기념식' 개최
이노근 의원, '조경산업진흥법' 제정 의지 밝혀

[291호] 2014년 03월 04일 (화) 22:23:01

이혜경 기자 ✉ leehye@latimes.kr



▲ '제 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3월 3일 '조경의 날' 첫 지정 이후 관심을 모았던 기념식이 야외공간인 서울광장에서도 함께 진행됐으며, 특별강연 및 시민참여 행사 등을 마련했다.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공동 이사장 김한배·이용훈)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조경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은 양병이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조경의 날 기념식, 시민참여 정원만들기 행사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양병이 이사장은 ‘조경,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공원법 제정일이자 경주 안압지 축조일인 3월 3일로 제정된 ‘조경의 날’은 조경분야를 대국민에 홍보하고, 조경인 결속, 조경 분야 자가 진단,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개발 시대, 고성장 시대에서 복지 시대와 저성장 시대로 바뀔에 따라 사회변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경의 패러다임으로는 ▲전통적→융합 패러다임 ▲사이버 시대에 적합한 조경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경 ▲조경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조경은 설계인가? 시공인가? 관리인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경인들은 ▲정부 각 부처 제도보완 ▲법규와 제도 보완 위한 마스터플랜과 전략계획 수립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비한 조경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과 함께하는 조경을 위한 조경인들의 훈련 ▲정부예산 확대와 시민 모금 활성화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조경업의 6차 산업화 ▲조경영역의 확대 노력 등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과보고를 맡은 서주환 조직위원장은 여러 시점에 걸쳐 유동적으로 시행되어 온 ‘조경의 날’이 기념일로서 정체성이 약화 되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기념일 재선정으로 특별강연, 전시회 및 시민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부터 기획과 준비, 시행에 이르기까지 범조경계의 공동주관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조경계 통합의 잔치로 치르게 된 것은 가장 큰 의의”라고 전하며, 올해 재단과 학회의 주력사업으로 ▲‘정원학 연구센터’ 설립 ▲학회 내 ‘조경정책 연구센터’ 설립을 한다고 알렸다.

특히 축사를 맡은 이노근 국회의원은 상반기 중에 현재 상정 중인 ‘조경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하며, 법 제정으로 조경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 및 사업 번창 등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이 대신 읽은 치사에서 “조경계 염원이 담긴 ‘조경산업진흥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조경인들의 환호를 받았다.

[화보] 조경의 날 기념식

[291호] 2014년 03월 04일 (화) 10:55:24

박석훈 기자 bsh4184@latimes.kr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레드카펫을 걷는 시민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민정원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는 학생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앞대경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기념식에서 영영이 (가)서울그린트러스 이사장이 '조경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서주환 조경의날 행사 조직위원장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이노근 국회의원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노근 의원 축사에 집중하고 있는 김한배 한국조경학회장과 경주 현 한국조경사회장(오른쪽)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노근 의원이 축사를 통해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국토해양부장관상 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자 및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수여자 기념사진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김한배 조경학회장 시민정원 개장식에서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민정원 타이프팅식



▲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울발장에는 '조경의 날' 기념으로 시민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민정원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3월 3일 조경의 날 기념식 개최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부 '조경산업진흥법' 연내 통과 힘쓰겠다

라펜트 기사입력 2014-03-04

URL 글꼴 + -



양병이 이사장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첫 시간에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양병이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조경,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졌다.

양병이 명예교수는 조경의 위기를 △인접분야에서의 조경분야 침투, △신도시건설 중단, △대규모 건설사업 부진, △조경담당 관련부서와 법제 미비로 진단했다. 양교수는 "조경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고성장 개발시대에서 저성장 관리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읽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미래 조경분야는 △환경부, 국토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조경의 영역을 찾는 적극성, △온난화,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는 대책,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준비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인접분야·이질적 분야와의 융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조경과 건축, 문화, IT, 관광, 의학, 농업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사이버시대에 적합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이버도시, 스마트도시에서의 조경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분야의 6차산업화를 통해 조경소재와 생산(1차), 시공(2차)와 더불어 문화서비스(3차)가 필요하다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배 회장



이노근 의원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조경산업진흥법이 법안심사 후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정병윤 국토도시실장도 "공원, 녹지, 하천과 같은 녹색인프라 외에도 도로, 주차장, 광장 등 회색인프라의 여유공간을 녹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빌딩의 건축부지, 옥상녹화, 벽면녹화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녹색인프라 추진 방향'을 설정해 도시녹화에 힘쓸 것이며, 조경산업진흥법도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승환 장관을 대신해 밝혔다.

서울광장에는 시민참여정원이 조성됐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 조경은 시민들과 함께해 조경의 날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부 녹색도시과 김정희 과장은 "조경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관할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 조경산업의 발전과 녹색도시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참여정원의 설계자인 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의 신현돈 대표는 "덕수궁과 원구단이 가까워 과거 한양길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정원 안에 레드카펫을 설치해 축제성을 강화했다."고 설계의도를 말했다. 시공은 온유조경이 맡아 진행했다.

김한배 한국조경학회장은 "기존 조경의 날이 유통적으로 진행되어 정체성이 약화됐다. 이번 조경의 날은 공원법 제정일인 3월3일로 정해 조경이 도시공원, 자연공원을 넘어서 국토전체의 조경으로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